

국어 공부를 1순위에 놓아야 하는 이유

WRITER



민태윤 교육 전문가
『국어 1등급의 비밀』 저자
前 교육과정평가원 수능국어 출제 검토위원



국어 공부,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제 아이가 자연계인데 국어 때문에, 대학에 떨어졌어요. 나름 국어를 공부한다고 했는데 실전에서 국어에 발목 잡힐 줄 정말 몰랐어요.”

이 학생은 수학과 과학 1순위, 영어 2순위, 국어를 3순위에 놓고 공부해왔다. 자연계 지원 학생이다 보니 국어보다 다른 과목을 우선순위로 공부했고, 자연스럽게 국어 공부에 할애한 시간도 적었다. 초, 중 시절에는 국어성적이 나쁘지 않아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국어 공부를 했다. 하지만 생각만큼 목표한 성적이 나오지 않았고 국어는 점차 애물단지가 되기 시작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이유가 무엇일까? 수학, 과학, 영어를 먼저 공부하고 남은 시간에 국어를 공부하겠다는 안일한 공부 계획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어 공부를 1순위로 놓고 공부 시간을 다른 과목과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 결국 이 학생은 국어를 1순위에 놓고 공부량을 늘린 결과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보통 공부 과목의 중요도는 수학, 영어, 국어로 순위가 매겨지는데 이러한 인식은 변화가 필요하다. 국어는 시간 날 때 하는 공부가 아니다. 국어는 표면 정보를 바탕으로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고, 논리적으로 연결된 문맥 의미를 파악하고, 글의 인과적 연결 고리를 찾는 종합적 독해 능력을 요구하는 과목이다. 다시 말해 이해력, 창의력, 표현력, 비판력을 길러주는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역량은 결국 수학, 영어 과목에 복합적으로 적용되며, 모든 과목의 바탕이 된다.

1등급을 위한 국어 공부법



학교 내신이나 수능 시험에서 국어 1등급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어라는 과목의 특수성 때문이다. 국어는 인문, 사회, 과학, 예술, 기술과 같은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학, 과학은 물론 다른 영역도 광범위하게 녹아들어 있다. 이는 국어 역량이 공부에서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하면 국어 1등급이 가능할까? 이를 내신과 수능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